

## 북한의 상류 사회, 그 틀 그리고 혼인

정용훈 / 「내외통신」 기사

“겨울

혼은 좋아하는 남녀가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집안간의 결합이다.”

결혼을 앞둔 남녀가 어른들로부터 혼히 듣게 되는 결혼에 대한 정의다. 상층과 중류층, 하층으로의 신분상 구조화가 끝난 사회에서 결혼은 신분 상승의 도구로 사용되기도 한다. 신데렐라나 온달을 꿈꾸는 것이다. 또 결혼은 가문과 가문이 만난다는 사실에서 자신이 속한 계층을 고수하기 위한 재생산 과정의 하나로 풀이되기도 한다. 결혼이 상류 사회에서 그 사회 구성원간의 결합을 통해 자신들의 위치를 공고화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이용되는 것이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미 한국 사회에서도 정치·경제적 상류층들은 서로간의 혼인이라는 끈으로 짝 짜여져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이 북한에서도 발생하고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우선 북한의 상류 계층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프랑스의 작가 M.S. 보스렌스키는 공산 국가의 '붉은 귀족'인 특권층을 가리켜 노멘

클라투라(Nomenclatura)라고 지칭하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타락성과 반인민적 성격을 지적한 바 있다. 공산 국가라는 특수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하나의 구조화된 사회로서 틀 지워진 북한에도 사회의 성격에 따르는 상류 계층이 존재하며, 그들은 그들만의 특권을 향유하며 배타적인 세계를 구축하고 있다.

북한의 상류층은 크게 세 부류로 분류된다. 첫번째 부류는 정치적 권력에 근접해 있는 일군의 집단이다. 북한은 사회 전부분에 대한 '당직 제도'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 이는 결국 당원이 된다는가 당간부가 된다는가 하는 것이 사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 해결의 턴키(turn-key)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당이라는 정치적 권력에의 인접 정도로 계층 설정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특히, 당에서 차지하는 지위는 행정 기관에서 같은 급의 지위보다도 훨씬 높은 곳에 위치지워진다. 따라서 당 간부들은 북한의 상류층을 형성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세력이다. 이와 더불어

당의 역할을 보조하는 행정 기관에 소속된 간부들도 중요도는 떨어질지라도 정치적 권력에 가까운 상류층으로 분류할 수 있겠다.

두번째 부류는 軍 간부들이다. 북한은 정치 권력의 정통성을 항일 빨치산 투쟁으로부터 구하고 있으며, 이는 자연스레 軍 부문에 대한 우대로 이어졌다. 특히, 김일성 측근들의 대부분이 항일 빨치산 참가자들이었고,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국가 수립 과정에서 軍 부문에 참여했다는 사실로부터 북한군은 여타 국가의 軍과는 달리 북한을 떠받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사회 세력이다. 軍 간부들 가운데 몇몇은 당 간부로 이동해 당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북한 사회의 상류층으로 자리잡았다. 당·정 간부와 軍 간부는 북한의 정권 수립 시기부터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특수한 권한과 위치를 차지한 북한의 아주 전통적인 상류 사회 구성원으로 볼 수 있다.

세번째 부류는 숙청 의화병이로 통하는 대외 부문에서 종사하는 일군의 집단이다. 이들은 신흥 상류층으로 구분될 수 있겠다. 70년대와 80년대를 거치면서 북한체제가 경제난에 직면하게 되자 사적 경제가 부재한 북한 사회에서 비공식적 경제 활동을 공식적으로 함으로써 富를 획득할 수 있는 대외 부

문 종사자들이 자연스레 상류 사회에 편입되어간 것이다. 심지어 대부분의 당·정·군 간부들이 자신들의 자식에게 대외 부문 종사를 희망하고 있을 정도로 대외 부문 종사자들은 선망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유명한 사회학자 C.W. 밀스가 미국의 상류 사회를 정치적·경제적·군사적 엘리트의 혼재로 해부했던 것처럼, 북한의 상류 사회 역시 이 자본주의적 기준에 수렴해가고 있는 것이다. 한편, 밀스는 미국의 상류 사회가 자신들을 재생산하고 배타성을 유지해가는 도구로 사립 학교와 클럽 문화 등을 꼽았다.

북한의 상류 사회 역시 이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남산고등중학교 → 김일성종합대학으로 이어지는 교육 코스는 전통적으로 북한의 상류 사회가 자신들의 영역을 구축하고 유지해가는 방편이었다. 당 간부·행정 간부·군 간부의 자식들이 학교 성원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이들은 자기들만의 공간 속에서 자기들의 생활 양식을 배우고 익혔으며, 그들만의 교류를 통해 상류 사회를 공고히 해간 것이다.

남산고등중학교는 1957년 개교한 후 1983년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폐교(폐교와 관련된 내용은 「내외통신」 주간판 1040호(1997. 1.16) 참조)될 때까지 김정일·김평

일·김영일 등 김일성의 자제들이 거쳐갔으며 차관급 이상 간부들의 자녀들이 수학했다. 김일성종합대학은 재차 설명할 필요가 없는 북한 최고의 대학으로 북한에서는 상류 사회 진입의 필수 조건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80년대 들어 상류 사회 구성원의 기준이 변화하면서 교육 코스도 바뀌었다. 남산고등학교가 폐교되면서 금성고등중학교와 평양제1고등중학교가 그 위치를 대체했으며, 대외 부문 종사자들이 상류 사회에 진입하면서 평양외국어학원이 상류층 양성 기관으로 성장했다. 이들 고등중학교는 웬만한 권력이나 재력을 갖추지 않고는 입학하기가 어려워 입학 때만 되면 각종 비리가 속출하고 있으며 중앙당에서 감시를 해야 할 정도라고 한다.

대학도 김일성종합대학 위주에서 탈피해 졸업후 대외 부문 종사 가능성이 큰 외국어 대학과 국제관계대학이 새로이 떠올랐다. 외교부나 대외 무역 기관에의 근무를 통해 외화를 만질 수 있다는 것은 '외화만능주의'가 판치고 있는 현재 북한의 상황에서 매우 큰 특전이기 때문이다.

상류층 유지에 필수적인 학교라는 요소가 북한에도 확고히 존재함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과연 서구식의 클럽 문화라는 것도 존

재할까? 자본주의식 클럽 문화와는 달리 북한의 클럽 문화는 최고 권력자인 김정일에 의해 만들어진다.

서구 문화에 대해 비교적 박식한 것으로 알려진 김정일은 평소 자신들의 측근을 불러 모아 음성적인 파티를 즐기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의 지배 계층 속에서 어 파티에 참가한 사람은 그 직위가 하찮을지라도 실제로 통하며, 파티에 참가하지 못한 사람은 그 직위가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허수아비에 불과한 것으로 분류된다.

자생적 상류 문화는 아닐지라도 이러한 비밀 파티는 권력의 최정점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참가 여부가 북한 사회에서 개인의 능력을 가늠케 하는 척도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자본주의식 클럽 문화에 비견될 수 있겠다. 이 문화 속에서 상류층간의 자연스런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서구의 그것과는 다르지만, 여하튼 자기들만의 파티를 열고 참가 여부를 통해 자신의 위치를 확인한다는 점에서 서구의 그것과 닮아 있다.

지금까지 북한에도 상류 사회가 존재하며 이들은 자신들만의 문화를 향유하고 폐쇄적인 사회화 과정을 통해 배타성을 유지해간다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이 자본주의 사회의 그것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알게 됐다. 그렇다면 북한의 상류 계층도 자본주의 사회에서와 마찬가지로 결혼을 통해 관련을 맺고 있을까? 만약 결혼을 통해 관련을 맺고 있다면 과연 어떠한 유형으로 전개될까?

앞에서 분류한 북한 상류 사회 구성 계층에 따르면, 산술적으로 아홉 가지의 조합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것은 단순히 산술적인 계산일 뿐 현재 드러나고 있는 모습은 아니다. 우선 가장 쉽게 상정해볼 수 있는 결합은 당 간부 자제간의 혼인이다. 단순하게 생각해 권력과 권력과의 결합을 통해 권력의 정도를 극대화하는 경우로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조합은 절대 권력을 움켜쥐고 있는 김일성·김정일 부자에 의해 철저히 금지됐다.

박금철·이호순으로 대표되는 '갑산파 사건'을 통해 가족주의의 폐해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킨 김일성 부자에게 권력 핵심 세력간의 결합은 이른바 '종파'를 형성해 절대 권력에 도전할 것이라는 위협을 내재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실례로, 60년대부터 당 조직지도부에서 잔뼈가 굵어 80년대 초까지 조직지도부 부부장을 역임했던 안배옥과 당 조직지도부장을 역임했던 윤승관의 혼사를 꼽을 수 있다. 80년대 초까지 조직지

도부 부부장이라는 실세 자리에 군림했던 안배옥이 사업 상의 과오로 남포시 당조직부장으로 내려가 혁명화 대상이 됐던 시기, 안배옥의 아들과 당시 엄청난 권력을 휘두르던 조직지도부장 윤승관의 딸이 90년대초 결혼을 했다. 김정일은 신임하던 안배옥을 조직지도부로 볼백시키려고 했으나 윤승관과 사돈지간임이 밝혀지면서 정무원 한 부서의 당간부로 머무르고 말았다.

이 사건이 있은 후 김정일은 당·정 간부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고 당 간부간 혼사를 절대 금지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강조는 내부적으로 교시화돼 하달되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당 간부간 혼인은 철저히 금지됐으며 혼인이 밝혀질 경우 불이익을 당해야만 했다. 이러한 위협에 대한 경계는 당 간부간 혼사뿐 아니라 군 간부간 또는 군 간부와 당 간부간 혼사에 대한 절대 금지로도 나타났다. 따라서 정치 권력에 가까이 다가선 상류 계층간의 결혼은 북한에서 찾아볼 수 없으며, 발생하더라도 결혼을 한 두 가문 가운데 한 가문은 상류 사회로부터 이탈해야만 하는 운명에 처해졌다.

이에 따라 북한에서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상류층의 결혼 행태는 정치 권력 주변에 있는 당·정·군 간부들과 대외 부문 중

사자간의 결합이다. 특히, 딸을 가진 당·정·군 간부들이 대외 사업에 종사하는 사위를 맞아들이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당 간부들의 경우 90% 이상이 이러한 형태의 결혼을 선호하고 있다.

당비서 계층의 경우 딸 둘이 모두 외화벌이 사업체의 일꾼들과 결혼을 했으며, 당비서 전병호의 경우도 사위가 외교부에서 근무하고 있다. 당비서 최태복의 딸도 외교부 지도원과 혼인을 맺었다. 특히, 최태복은 또 다른 당비서인 김용순의 아들과 혼담이 오고 갔으나 결혼후 세불리에서 오는 직위 추락을 염려해 포기했다고 한다. 이러한 행태로 인해 당 간부들의 경우 대외 부문 종사자를 사위로 얻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하게 여겨지고 있다. 당비서 김기남이 바로 그 경우이다. 김기남은 오히려 딸을 대외 부문 종사자와 혼인시키지 않음으로써 좋은 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80년대 경제난으로 대외 부문 종사자들이 상류 계층에 진입하면서 정치 권력과 경제적 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경 밀착 현상의 하나로 풀이된다. 권력에 가까이 있는 사람은 정치적 파워를 대외 부문 종사자들에게 실어주고 대외 부문 종사자들은 비합법적 경

제 활동을 통해 부를 축적하고 이 경제적인 힘을 나누어주는 것이다. 결국, 양자는 혼인을 통해 상보적 관계로 발전해가고 있는 것이다.

당 우위 국가로서 그리고 사적 경제를 허용치 않는 중앙 집권적 계획 경제에서, 국가 수립 이후 북한의 상층부는 항상 정치 권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당 간부와 행정 간부, 군 간부가 바로 그들이다.

80년대 경제난이 가속하기 시작하면서 국가관리체제에 구멍이 나면서 구멍을 헤집고 경제 활동을 벌이는 대외 부문 종사자들이 급부상하였고 상류 사회에 변화가 일어났다. 이제 정치 권력은 경제적 부를 요구하고 있으며 상류 사회에서의 권력과 부의 결합은 지극히 자연스런 현상으로 받아들여진다. 문제는 정치 권력과 경제적 부가 소수의 몇몇에게 편중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상층과 하층으로의 사회 분화다. 중간의 완충 장치가 없는 신분상 양극화는 북한 사회를 더욱 우울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統**